

KT ‘밀리의서재’, 결합상품 부당지원행위 조사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두고 콘텐츠 공급 거래금액 조사 나서

KT, 이동통신 사업서 이용권 제공 밀리의서재 코스닥 상장 영향 등 검토

KT가 계열사 밀리의서재를 활용한 결합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각종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KT가 밀리의 서재와 장기간 지속한 결합 상품 판매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달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종 지배회사인KT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밀리의 서재에 현저히 낮은 거래 금액으로 콘텐츠를 공급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니뮤직을 통해 밀리의서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밀리의서재 최대 주



KT가 계열사 밀리의서재를 활용한 결합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따봉AI

주는 지분 38.71%를 보유한 지니뮤직이다. 지니뮤직의 모회사는KT스튜디오지니로, 이 회사 지분 전부는KT가 보유하고 있다.

KT는 밀리의 서재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다. 이동통신 사업에서는 고가의 요금제 선택과 이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정할때 밀리의서재 이용권을 선택지로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핵심 금융 계열

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무료로 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구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KT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 이후 2022년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이후 2023년 566억원에서 이듬해 726억원, 지난해 882억원으로 매년 외형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2023년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KT가 밀리의서재에 어떤 조건으로 고객을 끌어왔는지, 정상적인 시장 거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보고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특히 밀리의 서재를 멤버십에 포함시킨 조건이나 정산 단계, 프로모션 비용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인다.

다만 정산 단계 등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인정될지 미지수다. 밀리의 서재가 가진 콘텐츠 독립성이 인정되면 경쟁사인 리디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서다.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산 방식과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내부 관계자는 “부당 지원 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기업이 (밀리의 서재를) 지원한 의도가 뚜렷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소상공인 앱 ‘시장이지’ 매장운세 콘텐츠 선봬

‘오늘의 영업 지수’ 콘텐츠 제공도

KT는 소상공인 전용 앱 ‘시장이지’에서 신규 콘텐츠 ‘매장운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출시한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시장이지’는 AI 이미지 제작부터 사업 성장 리포트까지 각종 경영 지원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현재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신규 콘텐츠 매장 운세는 사장님들이 자신의 매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했다. 먼저 매장 돈그릇 리포트는 개업일, 주소, 업종, 오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체적인 사업 성향을 알려준다. 재물운, 손님운, 위기 대응력, 성장 시기 등 점수를 도출하고 해설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낸다.

당일 영업 컨디션을 점수로 환산해주는 ‘오늘의 영업 지수’도 있다. 여러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 오늘의 처방, 행운의 컬러 등 매장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결과도 제시한다.

시장이지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공유도 가능하다. 비회원에게는 일부 결과만 제공된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투자… AI 생태계 확장

올해 초 ‘레인’ 시리즈C 투자 참여 Visa 연계 스테이블코인 활용 ‘강점’ AI 중심 미래전략, 금융 인프라 확대

네이버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한 것은 단순한 스타트업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는 네이버가 이번에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인프라까지 투자 영역을 넓히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IT·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법인인 네이버 벤처스는 올해 초 레인의 시리즈C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인은 이번 라운드에서 총 2억 50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19억 5000만 달러(약 2조 7000억 원)로 평가됐다.

2021년 설립된 레인은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카드 발급과 결제, 지



네이버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를 단행했다. /따봉AI

갑, 정산, 해외송금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비자(Visa) 네트워크와 연계해 기존 카드 결제 환경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AI 다음은 ‘결제 인프라’

업계는 이번 투자를 AI 중심이었던 네이버의 미래 전략이 금융 인프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은 생성형 AI 경쟁과 함께 결제·송금 인프라 확보에도 공

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기업 간 정산과 해외 송금, 글로벌 커머스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인프라 기업의 가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AI 검색과 AI 에이전트, 커머스 고도화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디지털 금융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네이버가 AI와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시너지 가능성

이번 투자를 두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추진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나온다.

네이버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자산과 간편결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레인이 보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가 더해질 경우 해외 결제와 글로벌 커머스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시너지는 업계의 전망일 뿐,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업 계획은 아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당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것이라기보다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핵심 기술과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AI와 커머스, 핀테크를 모두 갖춘 네이버가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해외 도착하면 로밍 자동연결”

‘로밍패스’ 개편… ‘심플랩’ 의견 반영

LG유플러스는 해외 로밍 서비스 ‘로밍패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해외에 도착하면 즉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절차를 줄이게 핵심이다. 고객이 현지 공항에 도착해 네트워크에 접속하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된다. 기존에는 국가별 시차와 서머타임을 고려해 현지 도착 시간을 직접 입력해야 로밍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족 간 데이터 공유 설정과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가족 로밍 대표 가입자가 구성원들의 로밍 가입과 데이터 공유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

가입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족에 따른 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여러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국내에서 이용 중인 패드를 로밍 가입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특정 기간 여러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로밍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설정 이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회사는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에서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현지 도착 시간 설정과 가족 간 공유 절차, 스마트 기기 연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맞춰 로밍 가입부터 이용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전환했다.

/조민선 기자

SKB, ‘B 티비 핫딜’ 누적판매 60억 돌파

전 품목 무료배송, 10개 홈쇼핑사 제휴

SK브로드밴드는 스포츠 커머스 서비스 ‘B티비 핫딜’이 누적 판매 6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B티비 핫딜은 다양한 홈쇼핑 상품을 모바일로 보는 것처럼 1분 내외 분량의 짧은 스포츠 영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홈쇼핑 업계 상생을 목표로 지난 11월 처음 선보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비스 론칭 8개월 만에 누적 판매액 60억원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량은 27만 건에 달한다.

이는 TV 커머스 성공 모델로 평가된다. 기존 홈쇼핑 방송이 1시간 동안 하나

의 상품만 소개했다면, B티비 핫딜은 짧은 시간에 많은 상품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커머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

또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한다. 소규모 생필품을 언제든지 탐색해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홈쇼핑은 대용량 상품 위주로 정해진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었다.

제휴 홈쇼핑사는 론칭 초기보다 두 배 가량 늘어 총 10곳이다. 현재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GS SHOP, SK스토아, KT알파쇼핑, 소풍엔티, W쇼핑 등이 상품을 판매 중이다. 판매 상품도 월 40개에서 174개로 대폭 확대됐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카톡 밀린 대화 내용 AI 요약으로 한눈에”

‘챗GPT 포 카카오톡’ PC 버전 확대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6차 정기 업데이트(v26.6.0)를 진행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AI 기반 기능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로 적용된 채팅방의 ‘대화 요약’ 버튼을 누르면 밀린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장기간 확인하지 않았던 채팅방에서도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챗GPT 포 카카오톡’의 이용 범위도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확대됐다. 모바일에서 이용하던 대화 맥락과 설정을 그대로 이어 사용할 수 있으며, 채팅방 상단의 ‘챗GPT’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진을 AI로 재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용자는 사진을 선택한 뒤 ‘AI로 만들기’를 통해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나 색연필 드로잉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다.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대화 중 공유한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프로필 게시물 등록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오픈채팅에는 챗봇(메타) 기능이 도입됐다. 방장이 원하는 챗봇을 채팅방에 초대하면 이용자는 별도 화면 이동 없이 낱씨, 주식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메시지 발송 후 24시간 이내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지원한다. 신규 기능은 카카오톡 v26.6.0 이상 버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최빛나 기자